

윤 대통령 “북, 핵으로 안위 못 지켜…핵 사용시 정권 종식”

성남공항에서 건군 75주년 기념식 주관 “북한, 핵이 안위 못지킨단 사실 알아야” “북한 추종세력 가짜 평화에 현혹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5주년 기념식을 주관하고 기념사를 통해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핵 기반의 한미동맹, 나아가 한미일 협력체제를 통한 핵 억제력 강화 의지를 천명했다.

◆“북핵,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평화에 중대 한 도전”

윤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며 “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북한 공산 침략으로부터 피로써 나라를 지켜냈고,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가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눈부신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실질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하여,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세력, 그 추종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관련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위협에 실

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위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이제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 체계는 북핵 억제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 속 강군 성장…통수권자로서 벽한 자긍심”

한편 윤 대통령은 “세계 속 강군으로 성장한 우리 군을 바라보면 국군 통수권자로서 벽한 자긍심을 느낀다”며 국군의 발전상과 국제 안보 기여 확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광복 후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태동한 우리 군은, 이제는 적에게는 두려움을 안겨 주고, 국민에게는 신뢰받는 세계 속의 강군으로 성장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손으로 직접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였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함을 건조했으며, 뛰어난 성능의 전차, 자주포, 전투기를 사상 최대 규모로 수출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6·25전쟁 당시, 자유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파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래 안보 위협에 대



응하는 국방 혁신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등 미래의 전장을 주도할 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병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최고 수준의 전투역량을 이끌어내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장병의 보수, 보급, 급식, 주거, 의료, 모든 부분에 있어 전투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방위산업에 대해서도 “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경제발전의 선도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시작하면서 국군 장병, 해외 파병 장병, 순국 장병, 창군 원로, 참전용사, 예비역, 군인 가족과 주한미군 및 가족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서선욱기자

강진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폐회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가 지난 2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강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건 ▲2023년 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1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5건을 원안가결했으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약 6.5% 증가된 6,302억 5,998만원이 증액됐으며, ▲강진미술관 운영 및 기본계획 수립 ▲강진버스여객 터미널 부지매입 교통 및 물류 등 7건에 대해 예

산 8억 6,846만 원을 삭감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경숙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및 지속적인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하여 지역소멸을 막고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와 국비지원 대책 방안을 담은 요구 목소리가 담겼다.

김보미의장은 폐회사에서 “현재 유가와 물가가 폭등하고 고공리가 계속되는 등 국내외의 어렵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민생을 더욱 세밀히 살피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더 많은 고민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가오는 추석에 군민 모두가 풍요롭고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위, 추석 앞두고 유적지 참배

여순사건 위령비·희생자 집단묘역 참배·헌화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을 비롯해 이미경 여순사건 특위 위원장, 고용진 부위원장, 문갑태·구민호·진명숙·김체경 위원 등 7명은 만성리 검은모래해변 인근에 위치한 여순사건 위령비와 시립 공원묘지 내 희생자 집단묘역을 방문해 참배·헌화했다.

여순사건 위령비는 여순사건 부역혐의자로 종산국민학교에 수용돼 있던 민간인을 학살한 장소에 2009년 건립됐다.

희생자 집단묘역은 호명동과 봉계동에 암매장된 희생자 유골을 1999년경 수습해 안장하면서 조성됐다.

여수시 관계부서 직원들은 참배에 동행해 두 유적지의 정비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위령비 환경정비를 지난 8월 완료했으며, 집단묘역은 올해 말까지 묘 이장 및 봉분 정비를 비롯해 안내판과 이정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유족들의 마음을 달래고 희생자들이 편안하게 영면할 수 있도록 집단묘역 정비 사업을 충실하게 완료해 달라고 시 정부에 당부했다.

여수=김현근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